

일본의 시기별 이민 현황

한국민족연구원

일본 최초의 해외이민은 1868년(명치 원년) 폴란드 계 미국인 Van Read¹⁾에 의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의 계약이민 153명이었다. 같은 해 괌(Guam)섬으로의 이민 42명도 반 리드의 알선으로 일본을 떠났다. 다음 1869년에는 독일인 슈넬(Shnell)의 알선으로 아이즈(會津)·와카마츠(若松) 번의 사족 등 40명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출국해 와카마츠 콜로니(若松コロニー)를 건설한 집단이민도 있었다. 또 1883년의 영국인 존 밀러(John. A. Miller)의 알선으로 36명의 인부가 진주 채취를 위해 호주의 Thursday Island(일본명 木曜島)로 출국한 것도 일본 정부가 허가한 이민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단발적으로 이뤄졌던 이민은 1885년 이후 하와이로의 본격적인 집단이민이 개시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해외이민을 본격화하기 시작하며, 이는 대체로 다음의 세 단계를 나눠서 살필 수 있다.(石川友紀 1997, 134-145)

I. 일본 해외이민의 시대구분

전전, 전후의 본인들의 해외이민(1885-1972년)은 대체로 3시기로 나눠살필 수 있다. 제1기는 관약이민(계약이민)시대 (1885-1898), 제2기는 자유-계약이민 시대(초청이민 포함) (1899-1945), 제3기는 자유이민시대 (초청이민 포함) (1946-1972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1) Eugene Miller Van Reed, (1835.5.17-1873.2.2)는 네델란드계 미국인이다. 그는 1859년 神奈川에 있었던 미국총영사관의 서기로 일본에 파견된 바 있고, 1866년에는 하와이 왕국의 총영사 자격으로 다시 일본으로 건너와 横滨에 체재하며 무역업을 시작했다. 그 후 1868년, 애도막부에 대해 일본인들의 하와이이주에 관한 허가를 획득, 4월19일 애도막부 해체 후에 설치된 明治정부의 横滨裁判所가 모집한 이민들에 대해 총영사의 자격으로 여권 업무를 맡았다. 이렇게 그는 결국 141명의 일본인들의 첫 이민을 주도하면서, 이 이민이 후일의 '일본계아메리카인' 성립의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구분은 일본이민의 이주국으로의 출국형태를 근거로 한 것이다. 즉 1898년까지의 일본이민은 하와이 등 대부분의 지역에의 계약(관약)이민으로 출국한 시대이며, 이것을 계약이민 또한 관약이민시대로 본다. 그러나 1899(명치32) 하와이로의 계약이민이 금지되고, 자유이민 시대가 되나, 한편 브라질, 페루 등 계약이민이 행해지는 지역도 있어, 1945년까지를 제2기 자유-계약이민시대로 본다. 그러나 초청이민(sponsored emigrant)이란 일반적으로 이민수입국에서 친족에 의해 초청된 이민을 지칭하나, 미국에서는 1908년의 신사협정으로부터 1924년의 排日新移民法까지의 16년을, 특히 초청이민시대로 부르고 있다. 캐나다도 같은 1907년의 신사협정 이후 일본이민이 제한돼, 초청이민시대로 크게 시대구분의 하나로 하고 있다.

1. 계약이민시대 (1885-1898)

일본에서의 본격적 집단이민이 시작된 1885년부터 하와이로의 계약이민(官約移民)²⁾이 금지되기 이전인 1898년까지의 14년간을 순수한 계약이민 시대라고 볼수 있다. 일본인의 본격적인 해외이주는 1885년의 하와이 ‘官約移民’ 으로부터 시작됐다. 일본과 하와이왕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에 의해, 일본인 사탕수수 경작지 노동자의 이주가 가능하게 되고, 1894년까지 9년간, 2만9천 여명이 하와이에서 힘든 노동에 종사했다. 같은 시기, 수천명의 일본인 노동자들은 남태평양의 섬으로 건너가, 그곳에 일본인 사회의 기초를 만들었다.³⁾

한편, 중남미로 향하는 일본인들의 출국도 19세기말에 시작됐다. 1893년에 설립된 ‘殖民協會’를 통해 정부관계자, 언론인, 정치가, 지식인들이 해외에서의 일본인 식민지(소위 신일본)의 확대에 부심했던 것이다. 일본도 근대국가로서 해외로 국력을 팽창시켜 시장을 확대하고, 잉여인구를 국외로 송출하려 했다. 榎本武揚⁴⁾을 중심으로 하는 ‘殖民協會’는

2) 이는 계약이민 또는 관약이민 혹은 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1885년(明治18년) 1월, 日布移民条約이 체결되어 하와이로의 이민이 공식적으로 허가되면서 시작됐다. 일본정부가 알선한 官約移民은 1894년 민간에게 위탁되기까지 약29,000명의 일본인들이 하와이로 건너갔다. 관약이민은 “3년간에 400엔을 번다”고 선전하면서 이민들을 모집했으나 실제로는 인신매매나 노예에 가까웠다. <https://ja.wikipedia.org/wiki/>(검색일; 2016/01/18일)

3) 계약이민(관약이민)시대는 일본의 농촌에서의 경제적 피폐가 심했던 시기다. 즉 1884년은 데플레정책에 의해 농민생활이 곤란하게 되어, 전국 각지에서 부채 반환에 항의하는 농민소동이 167건이나 일어났다.

4) 1836~1908, 막말 명치시대의 무사, 정치가. 네델란드에 유학. 귀국 후 해군 부총재. 명치원년 蝦夷地(北海道)箱館에 독립정권을 세우나 다음해 항복. 5년 特赦. 8년 特命全權公使러서 러시아와

1897년에 멕시코 남부에 유명한 ‘榎本植民地’를 만들어, 일본인의 라틴아메리카 이주와 일제사회 형성의 선구가 됐다. 그리고 그 2년후, 1899년에 790명의 노동이민이 페루로 향해, 일제 페루인들의 역사가 시작됐다.(石川友紀, 134-135)

초기의 일본인들의 해외진출은 일본 정부의 정책적 선택의 결과였다. 정부가 관여한 이민회사가 개입하여 국내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현지에 일본인들을 정착시켜 일본국가의 항구적인 거점 기반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었다.(Harumi Befu 2006, 28-31)⁵⁾

초기 일본의 해외이민은 하와이를 시작으로 북미, 남미, 그리고 동남아시아, 아시아대륙, 대만, 화태(사할린), 대양주로 넓혀져 갔다. 라틴아메리카로의 일본인 이민을 시작한 시기는, 멕시코 1892, 페루 1899, 칠레 1903, 쿠바와 아르헨티나 1907, 브라질 1908, 파나마 1915, 볼리비아 1916, 콜롬비아 1921, 우루과이와 파라과이 1930, 베네수엘라 1931년이다. 전쟁 전 일본은 라틴아메리카에만 24만 4344명을 내보내, 그 결과 현재까지도 일본계 인구는 라틴아메리카가 북미를 상회하고 있다.(Harumi Befu, 31)

〈표 1〉 하와이 계약이민 수 (1885-1894년)

(단위 : 명)

회수	도착연월일	남	여	어린이	계
1	1885 (소화18). 2.08	676	158	110	944
2	= 06.17	939	35	14	998
3	1886.02.14	693	230	4	927
4	1887.12.11	1,153	288	6	1,447
5	1888.05.01	865	198	-	1,063
6	= 11.14	878	203	-	1,081
7	= 12.26	940	203	-	1,143
8	1889.03.02	820	137	-	957
9	= 10.01	799	198	-	997
10	= 11.21	842	206	2	1,050
11	1890.01.09	864	200	-	1,064

樺太千島交換條約을 체결. 후일 通信, 文部, 外務, 農商務의 각 대신을 역임했다.

5) Harumi Befu, "Globalization as Human Dispersal Nikkei in the World, Lane Ryo Hirabayashi, Akemi Kikumura Yano, James A. Hirabayashi eds., New Worlds, New Lives ; Globalization and People of Japanese Descent in the Americas in Japan(Stanford University Press, 2002), 移民研究會 譯, 『日系人と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2006, 人文書院)

회수	도착연월일	남	여	어린이	계
12	= 04.01	857	210	4	1,071
13	= 05.22	878	190	-	1,068
14	= 06.17	462	134	-	596
15	1891.03.11	783	310	-	1,093
16	= 03.30	800	281	-	1,081
17	= 04.28	801	290	-	1,091
18	= 05.29	1,103	385	-	1,488
19	= 06.18	815	286	-	1,101
20	1892.01.09	1,098	-	-	1,098
21	= 06.25	883	241	-	1,124
22	= 11.28	797	191	1	989
23	1893.03.06	-	-	-	729
24	= 06.19	1,410	347	-	1,757
25	= 10.23	1,311	320	-	1,631
26	1894.06.28	1,195	296	-	1,491
계		22,662	5,537	141	29,069

〈출처〉 『拓殖論叢』, 第3卷 第2號 (昭和16年10月)

* 제23-26차의 하와의 도착 연월일은 영사관보고에서는 横浜출발 연월일을 잘못 기재하고 있으나, 〈日本移民概史〉와 그 밖의 문헌을 기준으로 여기에서는 그것을 정정했다. 그러나 영사관 보고에서는 남, 여별은 제22차까지가 기록돼 있지 않으나, 그 이후에 대해서는 神奈川縣 기록(官報에 수록)에 의한 것이다.

아시아대양주로의 이주 중에는 '가라유키상'(からゆきさん) 이라 불리는 성매매 여성이 많았으며, 그녀들은 주로 큐슈 북부로부터 동남아시아로 보내졌다. 싱가포르는 전쟁 전, 동남아시아 무역의 일대 거점이었으나, 19세기 말에는 싱가포르 주재 일본인 약 9,000명 가운데 거의 1,000명이 '가라유키상'으로 알려지고 있다.(今野敏彦, 藤崎康夫, 26)⁶⁾

필리핀으로의 이민은 라틴아메리카에의 이민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대대적으로 시작됐다. 그 대다수는 북쪽의 루손 섬과 남쪽의 민다나오 섬으로의 이민이었다. 그들은 루손

6) 집이 가난해서 해외로 돈벌이 하러 나간 여성들을 말한다. 미주대륙으로의 돈벌이는 「あめゆきさん」이라고도 불렀다. 만 단위 수의 'からゆきさん'들이 있었다고 한다.

섬에서는 산악지대의 도로공사에, 민다나오 섬에서는 농업에 종사했다. 민다나오 섬의 다바오에는 일본인 약 2만명이 이민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일본어 신문, 신사 등이 있었고, 일본인 학교도 있었다. 필리핀 이민도 초기에는 남북아메리카 이민과 같이, 단기간 일하고 일본으로 귀국하는 돈벌이였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장기간의 체류가 늘어나고, 현지인의 여성과 결혼하는 사람도 많아 제2차대전 발발까지 그곳에서의 생활이 지속된 경우가 많았다.

일본군의 필리핀 상륙과 더불어, 일본인 이민이나 2세 남성들은 일본 군대에 소집돼, 현지인들에 대해 폭행, 약탈, 방화 등의 만행을 하는 일본제국 육군의 앞잡이가 되기도 했다. 그 결과 현지인들의 증오를 유발하여 후에 미군이 상륙하면서 퇴각하게 되었을 때는 일본군에 협조했던 일본계 이민자들이 필리핀인에게 희생된 사람들도 많았다. (Harumi Befu, 32)

〈표 2〉 지역, 연도별 계약이민수 (1885-1894)

(단위 : 명), ()안은 %

연도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총계
회수	1-2	3	4	5-7	8-11	12-14	15-20	21-22	23-25	26	
広島	612 (31.6)	351 (40.4)	762 (52.7)	1,647 (50.1)	1,919 (47.1)	694 (25.4)	1,941 (27.9)	1,021 (48.3)	1,578 (38.1)	597 (39.2)	11,122 (38.2)
山口	420 (21.7)	490 (55.9)	637 (44.1)	1,611 (49.1)	1,919 (47.1)	651 (23.8)	2,228 (32.1)	703 (33.3)	1,271 (30.7)	494 (32.4)	10,424 (35.8)
熊本	276 (14.3)	36 (4.1)	16 (1.1)		118 (2.9)	776 (28.4)	2,703 (38.9)	267 (12.6)		55 (3.6)	4,247 (14.6)
福岡	149 (7.3)		1 (0.1)		116 (2.9)	615 (22.5)		2 (0.1)	1,297 (31.3)		2,180 (7.5)
新潟	37 (1.9)							99 (4.7)		378 (24.8)	514 (1.8)
神奈川	226 (11.7)										226 (0.8)
千葉	8 (0.4)						77 (1.1)				85 (0.3)
滋賀	79 (4.1)		2 (0.1)								81 (0.3)
岡山	37 (1.9)		25 (1.7)								62 (0.2)

연 도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총계
회 수	1-2	3	4	5-7	8-11	12-14	15-20	21-22	23-25	26	
和歌山	55 (2.8)										55 (0.2)
石川				28 (0.9)							28 (0.1)
鹿兒島								20 (0.9)			20 (0.1)
三 重	13 (0.7)		1 (0.1)								14
靜 岡	11 (0.6)										11
群 馬	10 (0.5)										10
栃 木			2 (0.1)								2
東 京							1	1			2
宮 城	1 (0.1)										1
계	1,934 (100)	877 (100)	1,446 (100)	3,286 (100)	4,072 (100)	2,736 (100)	6,950 (100)	2,113 (100)	4,146 (100)	1,524 (100)	29,084 (100)

〈출처〉 兒玉正昭 〈瀬戸内地域の官約移民〉 後藤陽一編 『瀬戸内海地域への史的展開』, (福武書店 1978) 334

위의 표에서는 히로시마 현이 전체의 38.2%인 11,122명, 야마구치 현이 전체의 35.8%인 10,424명으로 두 현을 합치면 전체의 74%를 점하는 압도적인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石川友紀, 139)

2. 자유-계약이민시대 (1899-1945)

1899년 이후 하와이 계약이민이 중지되었으나 페루나 브라질 등 남미국가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제도가 계속되고 있었다. 따라서 계약이민을 일찍 폐지한 국가들에서는 자유이민의 시대가 열린데 반해 다른 몇 나라에서는 계약이민도 지속, 이들 두가지 형태가 혼합된 이른바 ‘자유-계약이민’시대가 열렸다.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대량이민시대(mass immigration period)(1880-1930)에 해당하는 이시기를 이민 선별로 볼 때 다시 다음과 같이 4시기로 다시 나눌 수 있다.(石川友紀, 145-160)

〈표 3〉 지역별 해외이민 및 해외재류자수(1940)

(단위 : 명)

都道府県	1898 (명31)	99-1907	08-23	24-34	35-41	2,3,4,5 합계	52-61	62-72	해외재류자수 (중화민국포함) (1940 현재)
北海道	0	5	5,824	15,095	1,750	22,674	3,558	642	21,928
青森	0	2	542	1,212	133	1,889	491	140	3,355
岩手	0	39	345	2,002	299	2,685	530	284	5,179
宮城	0	2,024	1,848	3,285	648	7,805	785	77	10,993
秋田	0	14	213	2,699	232	3,158	347	78	5,600
山形	0	65	427	2,209	1,604	4,305	663	137	8,161
福島	0	4,557	9,954	8,783	2,629	25,923	2,442	113	26,729
茨城	0	22	380	1,834	139	2,375	388	196	7,035
栃木	0	111	286	851	50	1,298	224	78	5,099
群馬	0	162	343	1,565	335	2,405	1,061	119	5,443
埼玉	2	41	450	735	209	1,435	302	138	3,892
千葉	4	626	697	547	78	1,948	412	162	5,390
東京	41	421	1,857	4,486	1,703	8,467	2,244	1,311	23,347
新奈川	47	1,374	2,290	2,461	2,264	8,389	721	590	8,708
新瀉	0	8,609	3,296	3,553	175	15,633	297	72	13,786
富山	0	762	1,026	1,279	115	3,182	149	78	5,676
石川	0	74	514	1,368	91	2,047	250	32	5,938
福井	8	2,006	2,745	1,068	169	5,988	288	110	5,746
山梨	0	1,271	1,496	1,500	290	4,557	297	105	6,160
長野	0	324	2,416	2,459	743	5,942	603	194	13,397
岐阜	0	564	772	1,479	196	3,002	423	58	6,088
静岡	26	1,895	2,733	3,740	928	9,296	671	196	14,223
愛知	32	1,711	2,544	2,921	679	7,855	432	159	12,435
三重	38	1,948	2,124	1,774	179	6,025	388	97	8,096
滋賀	90	2,910	7,852	2,605	149	13,246	77	49	9,584
京都	1	62	275	1,255	223	1,815	246	93	7,237
大阪	16	672	1,154	4,727	1,143	7,696	415	434	14,108

都道府県	1898 (명31)	99-1907	08-23	24-34	35-41	2,3,4,5 합계	52-61	62-72	해외재류자 수 (중화민국포함) (1940 현재)
兵庫	65	3,600	722	2,680	1,440	8,442	594	341	13,559
奈良	0	0	239	893	93	1,225	148	72	3,317
和歌山		8,659	12,176	8,214	1,931	30,980	1,757	58	22,268
島取	5	1,170	1,492	1,428	131	4,221	236	36	6,722
島根	0	621	601	1,360	122	2,704	276	135	6,009
岡山	218	6,283	8,212	5,823	521	20,839	802	119	20,041
廣島	264	39,626	39,690	15,485	2,047	96,848	1,662	258	72,484
山口	239	18,867	17,576	7,898	882	45,223	1,943	184	41,788
徳島	26	190	343	883	120	1,536	283	50	4,853
香川	10	467	1,179	2,337	313	4,296	507	82	8,218
愛媛	3	1,564	2,494	3,775	881	8,714	1,711	62	13,382
高知	0	1,573	2,492	3,756	1,223	9,044	2,524	161	10,078
福岡	175	17,629	17,203	14,175	2,233	51,240	3,960	302	55,492
佐賀	85	1,292	2,649	4,208	1,234	9,383	928	162	14,592
長崎	589	5,248	8,174	4,922	987	19,331	3,426	368	26,323
熊本	176	21,517	24,759	19,158	2,812	68,246	4,005	302	65,378
大分	125	754	995	1,925	380	4,054	373	105	11,726
宮崎	0	57	96	1,523	299	1,975	1,373	196	6,211
鹿兒島	13	2,238	6,021	4,698	1,228	14,085	2,232	252	25,712
沖繩	0	10,190	22,351	27,599	12,087	72,227	14,822	2,389	57,283
不明		9							4,336
總數 (전국)	2,397	173,725	223,597	210,223	48,117	655,653	47,444	8,987	753,105

〈출처〉 石川友紀. 『日本移民の地理學的研究』. (榕樹書林 1997), 41-42

〈제1기〉 하와이, 북미 무제한 이민 후기 (1899-1907)

1899년부터 1907년까지 9년간 이민은 총 173,725명으로 연 평균 19,303명이다. 이 시기의 이민수는 앞의 계약이민시대에 이어 히로시마(広島)가 전국의 22.8%인 39,626명으로 수위이며, 이어 구마모토(熊本)가 12.4%인 21,517명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전기와 같이 세토(瀬戸) 지역의 히로시마(広島), 야마구치(山口), 규슈(九州) 지방의 구마모토(熊本), 후쿠오카(福岡)가 자유계약이민시대 제1기의 이민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그와 더불어 오키나와(沖縄) 현의 진출도 두드러졌다. 이 시기는 니가타(新潟), 후쿠시마(福島)를 제외하면 이민자의 출신지는 거의 전부가 일본 서남부 지역이며, 이는 그 이후 일본 해외이민이 많은 지역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이 때의 이민 송출국으로는 페루(1899), 필리핀군도(1903), 영국령 오찬도(1905), 아르헨티나(1907) 등이 새로 등장한다.

〈제2기〉 하와이, 북미 본토 무제한, 남미 이민 (1908-1923)

이 시기는 총 223,597명이 출국, 연평균 13,975명으로 전기보다 5,328명이 줄었다. 이 시기는 明治 말기로부터 大正 연간에 걸쳐 있으나,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이민을 보내는 지역과 전반에는 적은 대신 후반에는 집중되는 지역, 중반에 많은 이민을 내보내는 지역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때도 역시 수위는 히로시마(広島)의 39,690명(17.8%), 2위는 전기와 같이 구마모토(熊本)의 24,759명(11.1%), 3위는 오키나와(沖縄)로 전기의 5위에서 크게 늘어났다. 이때의 특색은 종래 이민 배출 지역에 추가하여 오키나와(沖縄), 와카야마(和歌山), 후쿠시마(福島) 지역 및 홋카이도(北海道)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이것은 이민 송출 지역이 차차 서남 일본에서 동북 일본으로 넓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의 이민 송출국으로서는 브라질(1908), 프랑스령 타히티(1910), 독일령 뉴기니아(1912), 파나마(1915), 볼리비아(1916), 콜롬비아(1921) 등이 눈에 띈다.

〈제3기〉 남미 이민 중기, 남양 및 동남 아시아 (1924-1934)

이 기간 동안의 이민 총수는 210,223명으로, 연 평균 19,111명이다. 大正 말기로부터 昭和 초기로, 전국적으로 이민이 계속되고 있지만, 수위는 그때까지의 히로시마로부터

전체의 13.1%, 27,599명인 오키나와로 바뀌었고, 2위는 구마모토 9.1%인 19,158명, 제3위가 히로시마의 15,485명(7.4%)였다. 이 시기의 특징은 오키나와 홋카이도의 진출이 눈에 띄고, 제5위까지의인 오키나와, 구마모토, 히로시마, 홋카이도, 후쿠오카의 5현에서 전체의 43.9%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와카야마, 아마구치, 오카야마(岡山)현 등 상위를 차지한 지역을 추가하면, 일본에서의 이민 송출 지방은 서남 일본에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새롭게 개시된 이민 송출국은 통계상으로는 한 나라도 없었다.

〈제4기〉 (남미이민 후기, 남양 및 동남아시아 이민) (1935-1941)

이 시기의 이민총수는 48,117명으로, 연평균6,874명으로 전기보다 12,237명이 감소되었다. 이 시기는 태평양전쟁 발발 직전까지의 시기로, 수위는 전기와 같이 오키나와 현으로 이민 송출 수도 압도적으로 많은 12,087명을 기록, 전체의 25.1%를 점하고 있다. 이 시기의 특색은 전체적으로 이민송출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지금까지 이민의 고장이라고 여겨졌던 지역은 큰 신장을 보이지 않는 반면, 새롭게 가나가와(神奈川), 도쿄와 같은 대도시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이 많아지고 있다. 이 시기 새롭게 개시된 일본이민 송출국은 파라과이(1936) 한 나라다.

〈제5기〉 (만주 개척 이민기) (1942-1945)

이 시기는 만주 이외의 외국 이민은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만주 개척 이민기, 혹은 식민기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아래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1932-1934년까지는 거의 1천 명대에 머물렀으나, 1935년에는 3천 명 대, 1938년에는 갑자기 3만 명대로 급증한다. 1942년부터 44년까지는 2만 명대를 유지, 제2차대전 종결 해인 1945년에도 1만3천명이 송출되어, 총 27만 7천명을 기록하고 있다.

만주 이민의 명목은 개척이민이었으나, 실제로는 일본의 영토 확장을 위해,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국책이민으로, 소위 식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만주사변 이후 증가를 계속한 만주 이민에 대해, 拓務省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1932년부터 20년간에 100만호, 500만명의 만주 개척이민 계획을 발표했다. 또 일본 국내의 농촌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만주에의 分村, 分郷 이라는 형태로, 개척농민을 집단이주시키는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표 4〉 연도별 만주 개척이민수 (1932-1945)

(단위 ; 명)

연 차	이민수
1932 (소화7)	1,557
1933 (8)	1,715
1934 (9)	945
1935 (10)	3,539
1936 (11)	7,707
1937 (12)	7,788
1938 (13)	30,196
1939 (14)	40,423
1940 (15)	50,889
1941 (16)	35,774
1942 (17)	27,149
1943 (18)	25,129
1944 (19)	23,650
1945 (20)	13,545
합계	270,007

〈출처〉 日本外務省移民局. 『海外移民統計』(1964), 47

아래 표는 제2차대전 직후에 조사된 대장성관리국의 『일본인의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 만주 편에 실린 송출 형태 별 만주개척단 수, 호수 및 인구다. 여기서는 일본에서 만주로 떠난 개척단은 의용군(대)도 포함 942단체로, 호수로는 102,239호, 인구로는 219,338명이었다.

〈표 5〉 송출 형태 별 만주개척단 수

구 분	단원	호수	인 수
집단개척단	482	35,839	126,662
집합개척단	123	6,040	21,146
분산개척단	94	3,260	12,079
의용대개척단 ⁷⁾	243	57,100	59,451
계	942	102,239	219,338

〈출처〉 小林弘二. 『滿州移民の村-信州泰阜村の昭和史』(築摩書房 1977), 115

7) 개척농민에 의한 만주 이주계획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1938년 이후 활동한 만몽개척청소년의 용단이었다. 위에서 보면 1945년까지 만몽 개척청소년 의용단으로 243단체, 5만7,100호, 59,451명이 만주로 보내진 것을 알 수 있다.

3. 자유이민 시대 (1946-1972)

1945년 제2차대전 패배 후 일본은 기존의 자유-계약이민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자유이민 시대가 시작된다. 제2차대전 및 전후의 점령정책으로 외국으로의 이민이 전면적으로 중지 된 시기가 있었다(본토 1945-1951년의 7년간, 오키나와의 경우는 1945년부터 1947년 까지 3년간).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전쟁 패배 이후 피폐한 경제상황과 이에 더한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민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이민을 논의하는 일조차 당시의 점령군 때문에 여의치 못했다. 이민을 일본에서 내보내는 것은 또다른 해외 침략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는 난처한 상황을 풀어 준 것은 결국 이미 브라질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브라질 이민들이었다. 상파울루주 마리아 농장경영주 였던 松原安太郎은 브라질 중서부지역에 4천 가족의 일본인 이민도입을 당시 브라질 대통령과 직접 교섭,1951년에 인가를 받아냈고, 같은 시기 구마모토 출신의 上塚과 브라질에 있던 일본 이민 辻小太郎도 같은 방법으로 브라질 북부 아마존에 5천가족 도입의 허가를 받아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민의 문이 열린 일본정부는 1951년12월에 외무성 구미국 제2과에 이민반을 설치하고, 53년9월에는 외무성 구미국에 이민과를 설치하고, 54년1월에는 이민 송출기관인 '재단법인일본해외협회연합회'를 각각 발족시켰다. 이 계획은 1953년부터 실행에 옮겨졌다. 외무성은 1953년에 이민5 개년 계획을, 1954년에는 이민10개년 계획, 또 1958년에는 5년간에 10만1천명의 이민을 내보내는 안을 만들었다. 1956년에는 도미니카공화국으로의 이민도 시작, 3년간에 1,319인이 송출되었다.⁸⁾ 이렇게 계속된 국책으로서의 일본의 해외 이민은 1973년 '日本丸'가 최후의 이민을 태워 남미로 건너간 것으로 종료됐다.(今野敏彦·高橋幸春, 21-25)

자유이민시대의 일본의 해외이민은 지역별로는 과거에 이민이 많았던 지역이 아니라, 도쿄, 가나가와, 오사카(大阪), 효고(兵庫), 후쿠오카(福岡)와 같이 대도시가 포함된 지역이나 홋카이도, 나가사키(長崎)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농업이민으로부터 공업이민으로, 이민의 형태의 변화에 의해, 일본이민의 질적인 전환을 이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유이민 시기의 일본의 해외이민은 정부에 의한 의도적인 인구정책이 커다란 배경이 되기는 하였으나 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새로운 환경에 따른 결과로

8) 今野敏彦, 高橋幸春 編, 『ドミニカ移民は棄民だった 戦後日系移民の軌跡』(明石書店 1993).

그 수가 늘어난 측면도 크다.(石川友紀, 162)

그 첫째가 국제결혼의 확산에 따른 인구의 해외이동 증가를 들 수 있다. 특히 이중에는 ‘戰爭花嫁(전쟁신부)’라는 이름의 국제결혼의 증가가 대표적이다. 소위 ‘전쟁신부’는 당초 점령군 병사와 일본인 여성과의 결혼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군기지가 지금도 존재하는 일본에서는 ‘전쟁신부’가 현재 진행형의 국제결혼 형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국제결혼의 또 하나의 형태는 군인 이외의 외국인과 일본인들과의 결혼이며, 1960년 이후 그 수가 서서히 증가해 가고 있다. 일본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일본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 소위 ‘전쟁신부’는 경제적으로 비교적 빈곤한 층의 여성이 많으나, 민간인끼리의 국제결혼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둘째, 다국적기업 주재원과 그 가족의 증가에 따른 인적 국제화 추세다. 현재는 일본기업의 해외에의 직접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널려있고 일본기업의 해외법인과 여기에 관련된 주재원 사회의 성장이 당연히 해외로의 일본이민 확산의 새로운 환경이지 않을 수 없다.

셋째는 1970년대, 일본경제 발전이 궤도를 탈 때 즈음, 일본정부는 퇴직 후의 생활을 개발도상국에서 보내는 것을 장려했다. 외화에 대한 엔화 가치의 상승, 도상국에서의 연금생활을 낙관시한 정부의 정책이었다. 이는 경제적으로 생산력의 손실, 복지, 의료시설을 과중하게 이용하는 연령층을 국외로 내보내, 국가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국가의 의도가 숨어 있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해외에서 노후 생활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또한 전후 일본의 해외이민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II. 해외이민의 지역구분

일본인들의 해외이민의 출신지역은 후쿠이(福井), 기후(岐阜), 아이치(愛知) 현 등의 서쪽지방을 연결하는 경계선으로 하여, 동북 일본과 서남 일본의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1899년부터 1941년까지 지역별 이민수 및 이민률은 다음표와 같다. 이를 보면 앞의 홋카이도 이민과는 달리,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서남 일본에 해외이민수가 많고, 또 이민률도 높다, 그리고 동북지방인 후쿠시마 현은 예외적으로 이민 수가 많고 이민률 또한 높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일본의 해외이민은 지역적으로 홋카이도 이민이 많은 동북일본과, 해외이민이 많은 서남 일본과의 구분이 확연함을 알 수 있다.

〈표 7〉 지역별 해외 이민수(1899-1941) 및 이민률(1940)

(단위 명)

道府縣名	(A) 이민수	(B) 인구수(1940)	이민률 (A÷B * 100)
北海道	22,674	3,272,718	0.69%
青森	1,889	1,000,509	0.19
岩手	2,685	1,095,793	0.25
宮城	2,805	1,271,238	0.61
秋田	3,158	1,052,275	0.30
山形	4,305	1,119,338	0.38
福島	25,923	1,625,521	1.59
茨城	2,375	1,620,000	0.15
栃木	1,298	1,206,657	0.11
群馬	2,405	1,299,027	0.19
埼玉	1,435	1,608,039	0.09
千葉	1,948	1,588,425	0.12
東京	8,467	7,354,971	0.12
神奈川	8,389	2,188,974	0.38
新瀉	15,633	2,064,402	0.76
富山	3,182	822,569	0.39
石川	2,047	757,676	0.27
福井	5,988	643,904	0.93
山梨	4,557	663,026	0.69
長野	5,942	1,710,729	0.35
埼玉	3,002	1,265,024	0.24
静岡	9,296	2,017,860	0.46
愛知	7,885	3,166,591	0.25
三重	6,025	1,198,783	0.50
滋賀	13,246	703,679	1.88
京都	1,815	1,729,993	0.10
大阪	7,696	4,792,966	0.16
兵庫	8,442	3,221,232	0.26
奈良	1,225	620,509	0.20
和歌山	30,980	865,074	3.58
島取	4,221	484,390	0.87
島根	2,704	740,940	0.36

道府縣名	(A) 이민수	(B) 인구수(1940)	이민률 (A÷B * 100)
岡山	20,839	1,329,358	1.57
広島	96,848	1,869,504	5.18
山口	45,223	1,294,242	3.49
徳島	1,536	718,717	0.21
香川	4,296	730,394	0.59
愛媛	8,714	1,178,705	0.74
高知	9,044	709,286	1.28
福岡	51,240	3,094,132	1.66
佐賀	9,383	701,517	1.34
長崎	19,331	1,370,063	1.41
熊本	68,246	1,368,179	4.99
大分	4,054	972,975	0.42
宮崎	1,975	840,357	0.24
鹿兒島	14,085	1,589,467	0.89
冲縄	72,227	574,579	12.57
총수	655,653	73,114,308	0.90

〈자료〉 (A) 外務省通商局(1921), 『旅券下付數及移民統計』, 이민수는 1899년부터 1941년까지의 누계 (B) 總理府統計局編(昭和50), 『日本の人口』(昭和45년 國勢調査の解説), 242-245

Ⅲ. 일본의 이민회사

1. 이민회사의 개요

일본인들의 해외이민에는 이민회사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특히 해외이민 제1, 2기 즉 계약이민 시대부터 자유-계약이민시대에는 이민회사(이민취급인)이 다수 설립돼, 많은 이민이 이 이민회사에 의해 세계 각지로 내보냈다. 이민회사란 이민취급인의 일종이며, 대체로 법인 조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⁹⁾ 이것은 정부 허가의 이민사업, 특히 이민 모집 및 송출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었다. 이민이 증가함에 따라 이런 종류의

9) 여기 말하는 ‘이민취급인’이란 1896년에 제정된 ‘이민보호법’에 규정된 ‘이민을 모집하고 그 출항을 주선하기 위한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그 대부분이 법인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칭하여 이민회사라고 불려진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이민통계에서는 이민회사를 민취급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민회사도 증가하여 성황을 이루게 됐고, 특히 1902년부터 1907년에는 걸쳐 그 전성기로, 1903년에는 이민취급인이 무려 36개를 헤아릴 정도였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악질 이민회사도 속출, 당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민회사란 계약이민과 표리일체로, 계약이민의 대부분은 이민회사가 취급했다. 그러나 하와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계약이민이 폐지돼 자유이민시대가 된 이후에도 이민회사가 활약하기도 하는 등 반드시 이민회사가 계약이민과만 연결된 것은 아니었다.(海外移住事業團, 6-8)

2. 이민회사의 실태

1) 계약이민시대 초기의 이민회사

이민회사의 출현은 1891년12월에 설립된 ‘日本吉佐移民合名會社’¹⁰⁾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이민회사의 설립 시기는 이민보호규제가 제정된 1894년(明治27년)이후다. 그러나 이 이전에도 이민의 출발항으로 알려진 요코하마(橫濱)나 고베(神戸) 등의 여관은 이민의 상담을 해 주고 있었으며, 소규모적인 이민의 알선장사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의 추세와 이민회사의 설립운동이나, 이민을 둘러싼 갖가지 문제 속출로 이민 업무가 복잡해짐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 이민취급사무 일체를 민간의 이민회사에 맡기게 됐다.(開國百年記念文化事業會, 365)

이렇게 하여 1894년에 神戸渡港合資會社(神戸), 海外渡港株式會社(廣島), 森岡眞(東京), 絲半商會, 小倉幸商會(大阪)의 5사가 설립되었으며, 1896년에는 日本移民合資會社(神戸), 九州移民株式會社(熊本), 東京移民合資會社(東京), 熊本移民合資會社(熊本)의 4사가 차례차례 설립되었고 또 하와이 호놀룰루에는 南友社가 설립됐다.

한편, 1894년4월, 일본정부는 勅令인 ‘이민보호규칙’을 제정, 2년후 이것을 법률로 공포했다.(1996.4.7일) 이 법에 의해 설립된 이민회사는 1991-1920년까지 50개사를 넘었으나, 1920년에는 결국 전부 통폐합돼 해외흥업주식회사 한 곳만이 남았다.(海外移住事業團, 7)

2) 취급 이민수

아래 표에서와 같이 이민취급인에 의한 취급 이민수는 최고는 1906년(明治39)의 31,241명이었으며, 다음으로 1899년의 21,514이었다. 최전성기는 1902년부터 1907년까지의

10) 이 명칭은 당시 日本郵船會社 社長이었던 吉川泰次郎과, 秀英社 社長이었던 佐久間貞一の 이름에서 만들어 졌다. 그러나 실제로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것은 佐久間貞一이었다.

6년간으로, 그 수는 1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石川友紀(b), 39-40).

이민취급인수는 (이민회사수를 포함)은 1년간 영업수로서 최고는 1903년의 36(사)였다. 또 이 전최성기는 1902에서 1908년까지의 7년간으로 추정되며, 그 간의 연평균 30(사) 전후의 이민회사가 이민을 내보내고 있다. 이 이민취급인수의 전성기는 앞의 취급이민총수의 전성기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취급이민총수에서는 1908년이후, 이민취급인수는 1909년이후 급감하고 있다.

〈표 8〉 연도별 이민취급인에 의한 이민수

연 도	이민취급인에 의한 이민 총수 (A)	이민취급인수 (B)	1사 평균취급 이민수 (A÷B)
1898 (명치31)	12,393	9	1,377
99	21,514	12	1,793
1900	5,071	18	282
01	3,547	12	296
02	14,174	29	489
03	11,735	36	326
04	13,039	30	435
05	11,754	29	405
06	31,241	30	1,041
07	16,486	30	550
08	4,594	23	200
09	1,298	5	260
10	3,072	4	768
11	1,537	3	512
12 (대정1)	4,413	4	1,103
13	9,486	4	2,372
14	6,092	4	1,523
15	1,602	3	534
16	2,229	4	557
17	8,720	5	1,744
18	10,237	5	2,047
19	4,589	2	2,295
1920 (대정9)	1,865	2	933
합 계	200,688	303	662

〈출처〉 外務省通商局 編, 『旅券下付數及移民統計』, 1921

전체로는 취업 이민총수가 이민취급연수가 긴것에 비례, 연평균 이민취급수도 그것들에 비례하고 있다. 먼저, 이민 취급인(이민회사)별로 보면, 취업이민 총수에서는 森岡眞 이 31,82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東洋移民合資會社(동경)의 25,300명이다. 이 양 회사는 모두 이민업무 취업 연수가 20년을 넘고 있다.

연평균 이민취급수는 최고가 海外興業株式會社の 2,763명이었다. 1,000명이상으로는 大陸殖民合資會社(1,963명), 東洋移民合資會社(1,205), 森岡眞(1,38명), 竹村與右衛門 (1,229), 東洋移民合資會社(1,205명), 熊本移民合資會社, 明治殖民合資會社(동경), 東京移民合資會社도 그 뒤를 잇고 있다.

3) 영업소재지 및 자본금

계약이민시대인 1898년의 이민취급인 영업소 소재지별 이민취급인수 및 자본금 총액을 보면, 도쿄가 모든 면에서 우세하다. 먼저 이민취급인수에서는 도쿄가 4개사로 가장 많고, 이어 구마모토의 2개, 히로시마, 와카야마, 오사카, 고베의 각 1개로 이어지고 있다. 자본금 총액으로는 도쿄가 30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이어 구마모토의 9만원, 히로시마의 6만원 순이다. 이민취급 1인당 자본금은 도쿄의 75,000원으로 수위, 이하 히로시마 6만원, 와카야마, 오사카의 5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7년후인 자유-계약이민시대 제1기(하와이, 북미본토무제한 이민 후기)인 1905년이 되면, 이민취급인 수도 자본금 총액도 전체적으로 대단히 증가한다. 먼저 이민취급인수를 보면, 히로시마는 1898년의 1사에서 9사로, 도쿄는 4사에서 8사로 증가한다. 또 구마모토가 2사에서 3사로, 고베가 1사에서 2사로 증가, 새롭게 야마구치의 2사, 센다이(仙台), 요코하마, 고치(高知), 오카야마, 지바(千葉)가 각각 1개씩이 나타난다. 그러나 1898년에 존재하고 있었던 와카야마와(와카야마의 한자는 和歌山임) 오사카에는 이민취급인이 없어진다. 그 결과 이민취급인의 구성비는 히로시마가 수위로 전체의 31%를 점하고 도쿄가 약 28% 등으로 양자를 합하면 전체의 약 6할을 차지하고 있다(石川友紀, 192-197).

3. 이민회사의 공과

이민회사의 공적의 하나는 일본사회 전체에 해외 진출의 열기를 불러일으켜, 이민으로서의 해외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심어줬다. 이것은 봉건제의 잔재가 농후하게 남아있던 당시 일본인들에게 해외로 눈을 돌리게 하는데 크게 일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또 명치유신 이후, 구미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했던 일본 정부의 근대화 정책과도 일치하는

것이였다.

이민회사가 행한 또 하나의 공적으로는 일본정부의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이다. 일본정부는 1894년 ‘이민보호규칙’ 제정 이후 이민 송출 등 이민사무 일체를 이민회사에 인양했다. 이민사업은 물품을 취급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운영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소위 투기성의 큰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는 이민회사의 설립이 매력적으로 비쳐, 많은 사람들이 이민회사 설립에 뛰어든 것도 사실이다. 하와이의 경우 이민회사의 막대한 이익과 더불어, 회사간부가 정치가가 되거나, 혹은 그 이익이 장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예컨데 日向輝武¹¹⁾는 당초 이민회사의 일개 사원에 불과했으나, 그 후 정치인으로 출세 했다.

한편 이민회사는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량회사도 속출했다. 이 이민회사의 흥망성쇠는 대단해, 1년도 되지 않아 문을 닫는 이민회사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이민회사들 간의 경쟁이 격렬해 지자, 부정도 횡행해, 이민모집에 있어서는 혈연, 지연 관계도 크게 작용했다. 예컨데 하와이에서는 현지 담당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금 병풍이나 日本刀(황금제)를 주는 경우도 있었다.(川添善市, 150)

당시는 유명한 이민회사라고 하더라도 약자의 입장에 있던 이민으로부터 착취를 했을 것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 착취에는 이민회사 단독의 경우도 있고, 또 관련은행과 결탁한 경우도 있었다. 예컨데 전자의 예로서는 페류 이민에서의 森岡眞에 의한 이민 송금지체나 불법 사용 문제 등이 있었고, 하와이에서 이민회사에 의해 만들어진 京浜銀行이 약속어음을 만들어 교묘하게 부정하게 사용한 것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이민회사와 이민간의 관계는 당시 어떤 이민지에 있어서도 순조롭지 못했다. 이민회사는 이민선으로부터는 모집 수수료를, 각 이민들로부터는 도항주선료를 징수했다. 예컨데 명치 말기에는 페류의 경우, 이민모집 수수료로 1인에 남자 20엔, 여자 30엔, 각 이민들로부터 1인당 25엔(하와이의 경우는 25엔)을 도항 주선료로 징수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민이 순조롭지 못했을 때는 당연히 이민회사에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민회사의 출항 전의 계약서와 도착 후 수입선과의 계약조건이 차이가 날 경우, 특히 임금 등에 대해서는 분쟁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예상 외의 저임금, 혹은 상당한 노동을 했음에도 생활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이민이 당초의 계약을 파기, 보다 좋은 생활조건을 찾아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예는 브라질에서 다수 나타났다. 그 후 일본정부는 1923년 이민취급수수료를 철폐, 그 대신 정부가 그 상당액¹²⁾을 이민회사에

11) 1870-1918, 明治-大正時代の 실업가, 정치가. 미국에서 大陸移民会社를 설립, 귀국후 京浜銀行 상무, 人民新聞 사장등을 역임.

지불하도록 했다. 이민회사의 성공비결은 우수한 이민들의 모집, 충분한 자본과 우수한 경영자, 계약 경지의 충분한 조사와 신뢰할 수 있는 계약 고용주나 계약조건, 좋은 이민 감독관이나 인솔자를 필요로 했다. 이들 중 어느 한가지라도 결여되면, 이민사업이 순조롭게 진전되지 않을 경우가 많고, 실패한 이민도 많다

4. 자유이민과 이민회사

계약이민 회사의 존속기간은 계약이민 및 자유-계약 이민시대의 제1기(하와이, 북미 본토 무제한 이민 후기)와 제2기(하와이, 북미 본토, 남미 이민 전기)의 大正 초기까지 이어진다.

兒玉正昭에 의하면 1907년까지는 이민 가운데 이민취급인에 의한 사람수가, 이민취급인에 의하지 않은 사람보다 확실히 많으나, 1908년을 경계로 이후는 그 관계는 역전된다. 그 후 이민취급인(이민회사 등)에 의한 이민수는 대체로 감소 일변도였다. 兒玉는 이민회사의 연혁을 5개의 시기로 나눠, 취급이민선에 대해 평가와 문제 점 등을 이용, 그 실태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兒玉正昭. 483-485)

제1기; 1891년12월-1894년4월(일본 최초의 日本吉佐移民會社 성립에서 이민보호규칙 공포까지) 취급이민 선은 하와이, 미국본토, 캐나다, 호주 퀸즈랜드, 피지 제도, 카돌브섬, 뉴칼레도니아섬 등이다. 제2기; 1894년-1906월(이민보호규칙 공포로부터 미국본토의 계약 이민 금지조항이 하와이에 적용되기까지), 이민 선은 하와이, 미국본토, 캐나다 등이며, 특히 하와이 이민의 최전성기였다. 제3기; 1901년8월-1908년2월(일본정부의 이민회사에 의한 자유이민의 하와이 출국 허가로부터 일미신사협정 성립까지) 이민 선으로는 자유이민이 하와이, 미국본토, 계약이민이 호주, 필리핀 군도, 멕시코, 페루 등이다. 이 시기는 이민회사의 전성기였다. 제4기; 1908년2월-1920년11월(일미신사협정 성립부터 해외흥업 주식회사가 유일한 이민회사로 되기까지) 이민 선은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 제국으로의 이민이 중심. 제5기; 1920.11 이후(해외흥업주식회사 중심의 시대) 이민 선은 브라질 이민을 주체로 한다.

이를 종합하면 자유-계약이민시대의 이민회사가 취급한 도부현별 이민수는 히로시마가 압도적으로, 이민 수 195,392명 가운데 43,940명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한다. 제2위는 구마모토가 24,242명(전체의 12.4%), 제3위는 山口的 20,823명(전체의 10.7%)으로 나타

12) 가족, 부부, 단독이민에는 35원, 초청(呼寄)도항자 및 재 도항자에게는 15원을 지급

나고 있다.(兒玉正昭, 486)¹³⁾

IV. 마치며 - 해외이민의 배경

일본은 과거 오랫동안 자국민들의 해외이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면 이렇듯 일본정부가 국가의 정책으로 전전, 전후에 걸쳐 일본인들의 해외이주에 그렇게 큰 힘을 쏟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몇가지를 중심적인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일본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일본인들의 해외이민의 대한 공식적인 명분은 해외진출을 통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국내에 쌓여있는 국민전체의 에너지를 넓은 해외로 발전시키는 길이 해외이민이며, 또 일본 국민들이 일본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등의 발달을 배경으로, 그들이 새롭게 진출한 상대국의 진보에 기여하는 것은 국제협력의 주요한 일익을 담당하는 것도 하여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며, 또 이러한 해외이주를 통하여 일본 국민들이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海外移住事業團, 251)

또 다른 해외이민의 명분은 전후의 인구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주로 이민 제1, 2기에 크게 강조되어온 이 논리는 일본의 영토확장을 목적으로 한 개척이민의 성격을 희석시키려는 논리이기도 하다. 일본은 전쟁패배 이후 인구문제가 특히 심각해졌고, 이런 상황은 전후의 경제상황의 악화와 더불어 이 문제의 타개책이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바로 이 문제의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적극적인 해외이민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제2차대전의 패배로 초토화한 일본에 구식민지 지배지역으로부터 돌아온 군인, 일반인 등 630만 여명이 들이닥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물가는 급등하고 암시장이 활개를 치는 등 전후의 경제파탄과 인구급증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13) 이민회사는 당초부터 계약이민, 자유이민을 구별하여 모집하였고, 그 주선료도 달랐다. 계약이민으로부터는 높은 수수료를 취하고 있음이 이민회사 영업허가원에 첨부된 다음의 업무내용으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계약이민은 남녀 공히 각 1인당 18원, 자유이민은 남녀 공히 각 1인당 10원을 도항주선료로 이민취급인이 수입한다.>

이에 대한 처방전의 하나로 해외로 일본인들을 내보내는 인구감소 작전이 대두되던 이민 제3기 자유이민시대에 강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이민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관변단체로 ‘海外移住協會’가, 1947년에, ‘海外移住促進協議會’가 1950년에 각각 설립되면서 일본의 전후 이민은 본격화된다(이들 단체는 1954년 ‘재단법인일본해외협회연합회’로 통합).

이밖에도 전후의 일본인들의 해외이민에는 보다 현실적인 배경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인구문제나 빈곤문제보다는 더 본질적인 정치 사회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정부가 늘상 내세우는 인구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이민이라는 주장은 상당히 과장되었다고 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는 일본에서 남미 이민을 많이 보낸 지역이 인구 밀도가 높은 東京이나 大阪과 같은 도시 지역이 아니라, 인구가 적은 지방, 그것도 中国, 九州와 같은 지방이 압도적이었다는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분산되었어야 할 국책이민이 어떻게 하여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 여기서 국책으로서의 해외이민 특히 남미이민의 목적의 하나는, ‘인구’나 ‘빈곤’이 아닌 다음과 같은 보다 실질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遠藤十亞希).¹⁴⁾

먼저, 이민정책이 개시될 당시, 전전에는 1920년대, 전후는 50년대, 주고쿠, 규슈 지방에서는 대중운동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됐으며, 이러한 사태로 정치화한 민중에 커다란 위기감을 느낀 일본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긴장을 완화할 수단으로 이들 지역 민중들에 대해 해외 이민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1920년대 전반의 대중운동은 농민, 노동자 그리고 ‘피차별부락’ 내의 좌파, 급진파의 움직임이었다. 농민운동은 1918년의 쌀 소동 이후, ‘日本農民組合’(日農)이 후쿠오카 오카야마를 중심으로 소작인이나 빈농 사이에서 세력을 확대, 급진적, 반체제적 운동을 선도하고 있었다. 농민들의 요구는 소작권의 확립이나 소작료의 영구적인 인하 등의 권리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변질하여 급기야 사회주의혁명 실현이나 일본제국주의 비판 등, 급진적인 정치투쟁으로 격렬화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제정, 반체제분자에 대한 철저한 탄압에 나섰다. 공산당원이나 공산계 노동자, 농민활동가, 수평사 지도자들을 일제 검거하는

14) 1950년대 당시 외무성 외곽단체였던 ‘(재)해외협력연락회’의 모집에 따라 카리브해 도미니카 섬나라로 이주한 1,319명 가운데 170명의 이민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은 초기 일본인 해외이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던가를 웅변하고 있다. 2006년 6월 7일 동경지방법판소에서 내려진 판결은 이민 간지 이미 20년 이상 경과하여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하여 원고측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일본인들이 전후 남미를 비롯한 많은 위험한 장소에 정부에 의해 ‘선동되어’ 이민갔던 사실을 밝힘으로써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으로 농촌지역의 생활개선이나 복지향상 등 다양한 사회정책을 실시했다. 그리고 1924년부터는 이미 시작되고 있던 남미 이민도 사회적 회유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했다. 정부주도로 해외이주 희망자를 모집, 출국수속의 도움이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광대한 신천지에서 자유와 가능성이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한편, 조용하게 해외이민이라는 명분으로 이들 ‘위험분자 제거’를 이워냄으로써 국내의 사회적 안전을 만들어 내려했다. 정부도 이주희망자에 출국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마련, 이민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또 ‘해외이주조합법’(1927)에 근거, ‘일본해외협회’나 ‘해외흥업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브라질이나 페루에 토지를 구입, 이민들을 집단으로 이주시켰다.¹⁵⁾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초기 이민정책의 목표가 된 것은 빈곤층, 특히 지방의 빈농이나 실업자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지방의 빈곤층이 취직을 위해 도시부로 대량유입 되면 도시가 무정부 상태에 빠지고 또 과격파의 온상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도시의 사회대책으로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의 빈민들까지 돌볼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해외에 나가버리면 나라의 부담은 경감된다.

한편 피차별 부락에 대해서도 차별로부터의 해방 수단으로 남미이민이 장려되었다. 1927년 해외이주용 예산이 ‘융화사업’예산 속에 신설돼, 남미 이주 희망자와 그 가족의 이주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했다. 부락민의 남미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이주조성금제도는 그 후도 융화정책의 일환으로 계속되고 예산도 확대되었다. 이때 동원된 논리는 부락민은 국내에서 언제까지나 차별을 받기보다, 멀리 떨어진 남미의 광대한 신천지에서 자유, 자활을 찾아야 한다는 ‘자립갱생’의 논리였다. 피차별부락이라는 뿌리깊은 사회문제에 궁색해진 행정이, 차별의 대상자들을 해외로 내보내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배제의 논리’를 이민정책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전후, 혼란수습기에는 해외이민 대상자들에 대한 ‘기민정책’마저 도입했다. 전후의 남미이민이 한창이던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에 걸쳐, 규슈지방은 다시 정치적인 불안이 높아지고 있었다. 탄광노동자에 의한 쟁의와 안보투쟁을 계기로, 반체제운동이 격화되기

15) 당시 일본인의 남미이민을 고안, 실행한 인물에 永田稯 (1881—1973, 明治 - 昭和시대의 이민사업가. 東京専門学校(현 와세다대학)를 중퇴, 미국 등을 방랑. 귀국후 도미청년들을 원조하는 日本力行會의 2대회장. 大正11년 고향 長野縣의 ‘信濃海外協會’설립에 참여, 편저에 『信濃海外移住史』 등)라는 인물이 있다. 기독교 활동가로, 후에 만주이민계획에도 관여하게 되는 그는 인구문제나 빈곤은 ‘상상의 적화’, 더욱이는 공산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견, 그 예방책으로 해외이주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스스로 북, 남미대륙, 중국동북부를 시찰, 일본인의 이주후보지를 찾아 돌아다녔다. 일본정부의 협력을 얻어 브라질 상파울루주에 건설한 ‘아리안사이주지’도 그의 이러한 정치사상을 체현하고 있었다.

시작됐다. 전후 일본의 부흥을 지탱해오던 야마쿠지 및 규슈 북부의 석탄산업은 55년 이후, 에너지 전환정책에 의해 쇠퇴, 한때는 30만에 가까웠던 지역의 탄광노동자들에게 해고 바람이 불어닥쳤다. 그들은 조합을 만들어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 가운데서도 ‘총노동 대 총자본의 싸움’이라고도 알려졌던 ‘미쓰이미이케(三井三池)투쟁’(1959-60년)은 일본 노동쟁의 사상 가장 긴 규모의 투쟁이었다

미이케 투쟁이 시작된 직후인 1959년12월 18일,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내각은 탄광 이직자를 농업전문가로서 해외로 집단이주시키는 계획을 입법화했다.(탄광이직자 임시조치법) 이주 대상지로는 이미 일본인 이주자의 수입을 약속한 브라질, 볼리비아 등이 선택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노조는 이민이 노동투쟁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반발, 노동자에게도 경계를 호소했다. 한편, 경제기획청은 이직자에 해외이주를 개몽하기 위한 조직 ‘이직자 원호협회’를 설립, 각 지방에서 이주 희망자 모집에 분주했다. 이러한 전후의 대남미 이민정책은 패전 직후의 혼란을 수습할 가장 손쉬운 방책으로 시작되었으나, 1950년대 후반에는 탄광 이직자라고 하는 경제적으로도 불필요하고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국외로 방출한다고 하는 ‘棄民政策’적인 성격마저 띄었다.(今野敏彦, 6,7장 참조)

이상에서 실권 인구 및 빈곤문제라는 명분적인 이유와 농민운동, 피차별부락 해소라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는 다같이 시기와 대상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면서 일본의 해외이민을 만들어 낸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하여야 할 일은 이상에서와 같은 전전, 전후의 일본인들의 해외이민, 특히 남미 이민은 다양한 경로나 목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그 모든 것은 하나같이 일본정부의 주도면밀한 계획과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해외이민들이 만들어 낸 현지 일본인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인 성공은 물론 해외에서 그들의 모국인 일본에 대해서 가지는 망향심을 ‘원거리 민족주의’로 발전시키는데도 일본 정부는 세심한 주의를 경주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하튼 일본인들의 해외이민이 가지는 이 같은 의미는 이민을 떠나면 그들이 도착한 현지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이른바 ‘落地生根’ 정책의 모델로써 뿐 아니라, 현대 이민사에서 이민들과 현지와의 공존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구축해 내고 있는 하나의 사례로서의 의미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 石川友紀, 『日本移民の地理學的研究』, (榕樹書林, 1997)
- 石川友紀(b), ‘統計による日本出移民-第1報’, 『地理科學』 第11號,
- 今野敏彦, 高橋幸春 編, 『ドミニカ移民は棄民だった 戦後日系移民の軌跡』 (明石書店, 1993)
- 木村健二, ‘近代日本の移民・植民活動과中間層’ 柳澤遊, 岡部牧夫 編, 『帝國主義와 植民地』, (東京堂出版, 2001)
- Lane Ryo Hirabayashi, Akemi Kikumura-Yano, James A. Hirabayashi eds., *New Worlds, New Lives ; Globalization and People of Japanese Descent in the Americas in Japan*(Stanford University Press, 2002), 移民研究會 譯, 『日系人と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2006, 人文書院)
- Harumi Befu, “Globalization as Human Dispersal Nikkei in the World, Lane Ryo Hirabayashi, Akemi Kikumura-Yano, James A. Hirabayashi eds., *New Worlds, New Lives ; Globalization and People of Japanese Descent in the Americas in Japan*(Stanford University Press, 2002), 移民研究會 譯, 『日系人と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2006, 人文書院)
- 今野敏彦, 藤崎康夫, 『増補移民史-2』, (新泉社, 1996), p.26
- 開國百年記念文化事業會, 『日米文化交渉史-第5卷 移住編』, (洋洋社, 1955), p.365
- 外務省通商局 編, 『旅券下付數及移民統計』, 1921
- 日本外務省移民局, 『海外移民統計』, 1964
- 川添善市, 『移民百年の年輪』, 1968
- 海外移住事業團, 『海外移住事業團十年史』, (昭和48年)
- 遠藤十亞希, <南米に渡った日本人移民は‘棄民’たったのか>, 『中央公論』, 2008년5월

- 木村健二, '近代日本の移民・植民活動과中間層' 柳澤遊, 岡部牧夫 編, 『帝國主義와 植民地』, (東京堂出版, 2001)
- 小林弘二, 『滿州移民の村-信州泰阜村の昭和史』(築摩書房, 1977)
- 外務省通商局(1921), 『旅券下付數及移民統計』
- 總理府統計局編(昭和50), 『日本の人口』(昭和45年 國勢調査の解説)